



세계는 FTA 전쟁 | 향후 이슈

한·일... 日 비관세장벽 해소 여부가 최대 걸림돌
 한·미... 스크린쿼터 축소·쇠고기 수입 재개 우선조건
 한·중... 가격 경쟁력에 밀린 농업·제조업 피해 우려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등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들과의 FTA를 일 단락했다. 각각 남미·아시아·유럽과의 무역에 있어 교두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다. 앞으로는 일본·미국·중국 등 거대 시장과의 FTA가 한국 앞에 놓여 있다. 이들 세 나라는 경제 규모나 우리 경제와의 연관성 등을 감안할 때 앞서 FTA를 체결한 나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

먼저 한·일 FTA는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양국은 경제연관 관계가 매우 깊고 비슷한 산업구조와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FTA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본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매우 낮고 특히 공산품의 관세율은 거의 무세에 가깝다는 점 때문에 관세인하에 따른 득실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가득이나 커지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될 것이다.

일본과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양국 협상이 중단된 것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있어서 일본의 소극적 태도가 주된 원인이다. 일본이 싱가포르, 멕시코 등과 체결한 FTA를 볼 때 한국과의 FTA에서 자국 농산물 시장을 쉽게 개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 향후 협상에서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일본 공산품의 수입확대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과제가 되고 있다. 양국 간 경쟁력 차이 때문에 FTA 체결 이후 통합된 시장에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 1차 한·일 FTA 협상에서 만난 양국대표. 오른쪽이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일본은 고부가가치·차별화 제품, 한국은 저부가가치·범용 제품을 생산하는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문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한국 산업계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의 해소 없이는 한·일 FTA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의 비관세 장벽들은 일본의 고유한 문화에 기인한 비제도적인 상관습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쉽게 고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 비자 면제를 포함한 사람의 이동,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산업협력 등의 부문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있으며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국 내 반일 감정 등도 한·일 FTA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FTA를 살펴 보면,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장인 데다가 최근 대미수출이 부진한 점, 미국과의 경제외적인 협력 관계 등을 감안해서 그동안 국내 산업계는 한·미 FTA 추진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제조업자 단체가 한국을 향후 유망한 FTA 후보국

으로 지정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양국 정부 간 사전협의가 진행되는 등 FTA 추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양국 간 관세율을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대미수입 증가의 상당 부분은 일본 등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환되는 효과일 수 있고 현재 우리가 미국에 대해 큰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FTA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공산품 분야에서 미국의 관세가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상당한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자유입 효과도 예상되

는데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는 38억달러에서 96억달러로, 기타 국가로부터는 178억달러에서 222억달러로 추가적인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 제도 축소와 광우병으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자동차 매연가스 규제 완화, 약품 가격산정 문제 등이 양국 간 FTA 논의 개시 전에 해결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미 FTA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이용해서 미국의 실리를 찾으려고 하는



기획특집 3

순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년)
1	일본	19.83	18.88	19.63	20.31	20.56
2	중국	7.98	9.43	11.44	12.25	13.18
3	미국	18.22	15.86	15.12	13.88	12.82
4	사우디아라비아	6.01	5.71	4.96	5.18	5.26
5	독일	2.88	3.17	3.60	3.81	3.78

순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년)
1	중국	10.71	12.09	14.62	18.11	19.60
2	미국	21.83	20.75	20.18	17.66	16.88
3	일본	11.88	10.97	9.32	8.91	8.55
4	홍콩	6.22	6.28	6.24	7.56	7.14
5	대만	4.66	3.88	4.08	3.63	3.88

<자료 : 산업연구원>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 협상, 그리고 최근의 쌀협상 국회비준 지연 등을 지켜보는 미국으로서는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야기될 국내 농업계 및 서비스 부문의 반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협상을 시작했다가 자칫하면 반미 감정만 심화되는 결과를 미국 측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시장 개방 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의 주요 수출품 목인 옥수수, 밀, 콩 등이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쌀을 제외한다면 추가적인 수입증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반면 서비스 부문의 경우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데다가 아직 개방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개방의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장 개방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중국과의 FTA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양국의 연구기관 간에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시장규모 및 성장 가능성으로 볼 때, 중국은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중요한 시장이 틀림없다. 이미 우리 수출 제1위 시장인 데다가 세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GDP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3.4%에서 2020년에는 6.3%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과의 FTA 체결은 세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 접근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비교적 관세수준이 높고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시장개방 여력이 큰 편인 데다가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FTA에 따른 우리 수출상품의 피해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FTA 내에 투자보장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 중국 투자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내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사회주의적 잔재들은 분명 FTA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특히 농업 부문은 중국과의 FTA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렴한 생산비, 비슷한 자연환경 등으로 중국은 우리가 생산하는 거의 모든 작물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쩍 향상되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감안할 때 국내 중소기업, 나아가 일부 대기업 제품에 대한 피해도 우려된다. 특히 중국과의 FTA가 실제로 발효될 향후 5년 후쯤에는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현재보다는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별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중 FTA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중요하다. 미국, 일본 등 기존 우방과의 관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 등이 한·중 FTA 추진에 중요한 고려변수가 될 것이다.

